

HTTP 메서드

- HTTP API를 만들어보자
 - HTTP 메서드 - GET, POST
 - HTTP 메서드 - PUT, PATCH, DELETE
 - HTTP 메서드의 속성
-

HTTP API를 만들어보자

요구사항

⇒ 회원 정보 관리 API

- 회원 목록 조회
 - 회원 조회
 - 회원 등록
 - 회원 수정
 - 회원 삭제
-

API URI 설계

User Resource Identifier

- 회원 목록 조회

⇒ /read-member-list

- 회원 조회

⇒ /read-member-by-id

- 회원 등록

⇒ /create-member

- 회원 수정

⇒ /update-member

- 회원 삭제

⇒ /delete-member

이것은 좋은 URI 설계일까?



가장 중요한 건 “리소스 식별”

API URI 고민

• 리소스의 의미?

⇒ "회원"이라는 개념 자체가
리소스!

• 리소스 식별 어떻게??

- 회원을 (등록, 수정, 조회, ...)

- "회원"이라는 리소스만 식별하면 OK

⇒ 회원 리소스를 URI에 매핑!

API URI 설계

• 회원 목록 조회

• 회원 조회

• 회원 등록

• 회원 수정

• 회원 삭제



리소스 식별, URI 계층 구조 활용

- 회원 목록 조회

⇒ /members

- 회원 조회

⇒ /members/{id}

- 회원 등록

⇒ /members/{id}

- 회원 수정

⇒ /members/{id}

- 회원 삭제

⇒ /members/{id}



구분이 안 됨!



리소스와 행위를 분리
(결국 66 리소스 식별 ^^)

- URI 는 리소스만 식별 !

- 리소스 : 회원

- 행위 : 조회, 등록, 삭제, 변경

HTTP 메서드 종류

(주요 메서드)

- GET
: 리소스 조회
← 최근엔 representation으로 바뀜
- POST
: 요청 데이터 처리, 주로 등록에 사용
- PUT
: 리소스를 대체. 해당 리소스 없을 시 생성
- PATCH
: 리소스 부분 변경
- DELETE
: 리소스 삭제

-
- HEAD
: GET과 동일 But 메시지 부분 제외, (상태 줄, 헤더)만 반환
 - OPTIONS ← 주로 CORS에서
: 대상 리소스에 대한 통신 가능 옵션(메서드)을 설명
 - CONNECT
: 대상 자원으로 식별되는 서버에 대한 터널 설정
 - TRACE
: 대상 리소스 대한 경로 따라 메시지 루프백 테스트 수행

HTTP 메서드 - GET, POST

GET

- 리소스 조회
- 서버에 전달하려는 data는
query 통해 전달
(쿼리 파라미터, 쿼리 스트링)
- message body 사용해서 data 전달 가능
But, 자원 X인 곳 많음 \Rightarrow 권장 X

ex)

GET /search?q=hello&hl=ko HTTP/1.1

Host: www.google.com

GET

- 리소스 조회 ① - 메시지 전달
- ② - 서버 도착
- ③ - 응답 데이터
-

POST

- 요청 데이터 처리
- message body 통해
서버로 request data 전달
- 서버는 req. data 를 처리
 - ↳ msg. body 통해 들어온 data 처리하는
모든 기능 수행
- 전달된 data로
주로 신규 리소스 등록, 프로세스 처리에 사용

-
- 리소스 등록 ① - 메시지 전달
② - 신규 리소스 생성 (신규 리소스 식별과 생성)
③ - 응답 데이터
- ↳ location
(자원이 신규 생성된 URI)

정리

- 새 리소스 생성 (등록)
- req. data 처리 ← cf) 컨트롤 URI
(동작 행위가 URI로)
- 다른 메서드로 처리 애매한 경우
ex) JSON으로 data 넘기기
but GET 쓰기 어려울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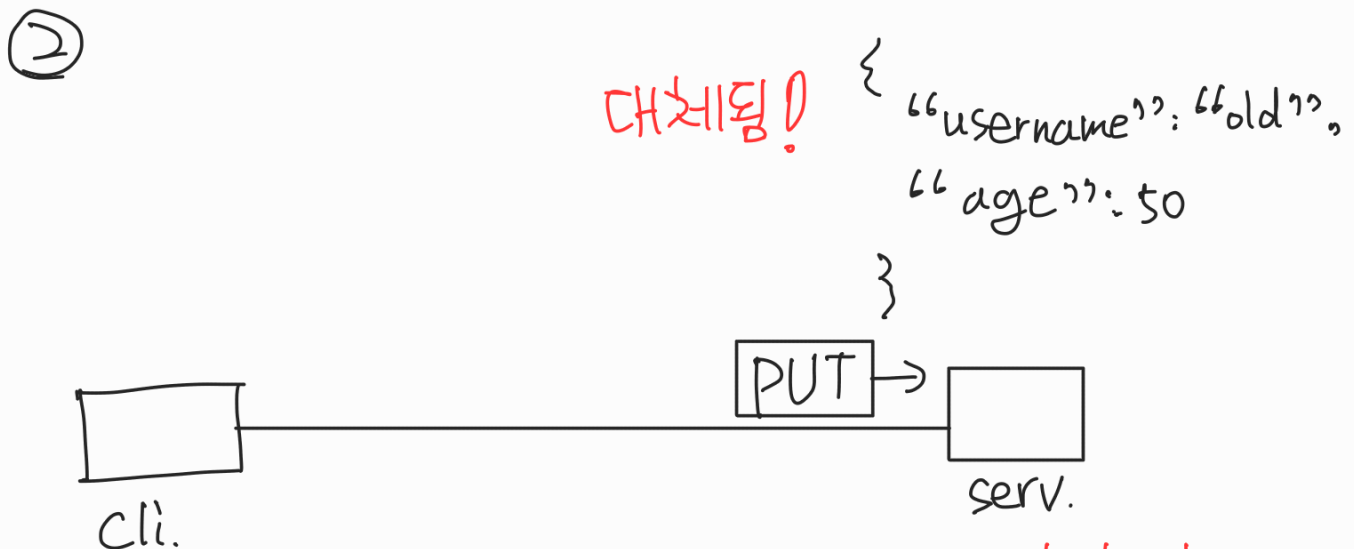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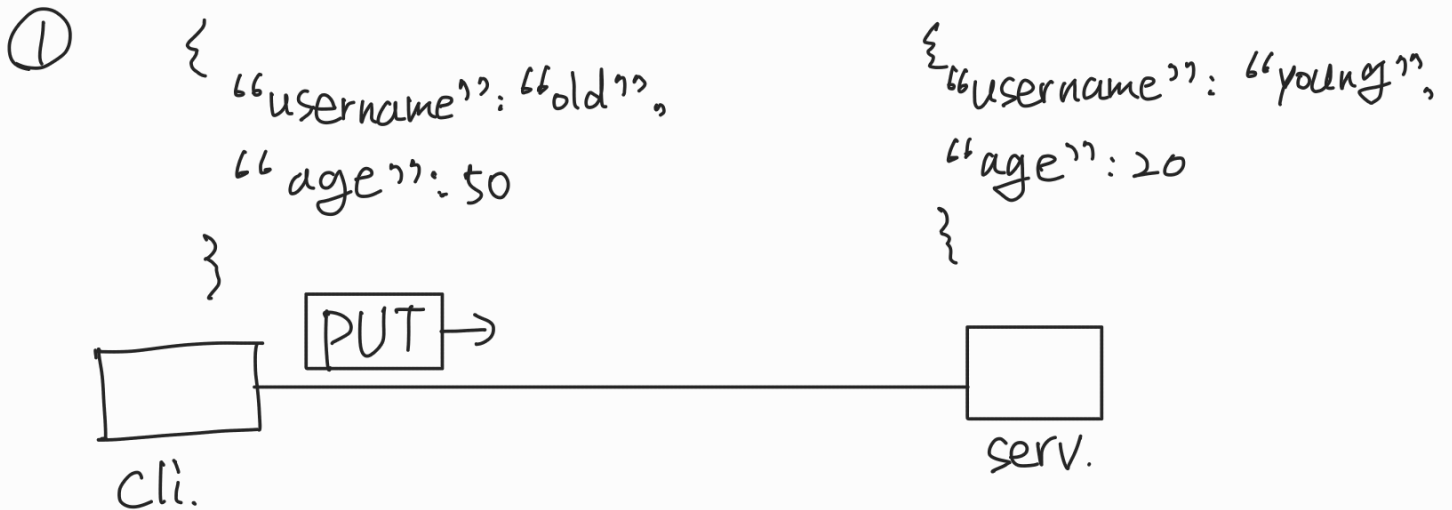
PUT

- 리소스를 대체
- ↳ 리소스 $\begin{cases} \text{있으면} \Rightarrow \text{완전히 대체} \\ \text{없으면} \Rightarrow \text{생성} \end{cases} \Rightarrow \text{덮는다.}$

~~*~~ client가 resource 식별

- client가 리소스 위치 알고 URI 식별
- POST와의 차이점 ↗

(!) 리소스가 있는 경우



~~*~~ 리소스를 완전히 대체한다.

(ii) 리소스 없는 경우

⇒ 신규 리소스 생성

PATCH

- 리소스 부분 변경

DELETE

- 리소스 제거

HTTP 메서드의 속성

- 안전 (safe)
- 멱등 (idempotent)
- 캐시 가능

안전 (Safe)

- 호출해도 리소스를 변경 X
(해당 리소스에 대해서만 안전이라는 의미)

멱등 (Idempotent)

- 한 번 호출, 두 번 호출, ..., 100번 호출
⇒ 다 결과가 똑같다.

• 멱등인 메서드

- GET
- PUT
- DELETE
- ~~POST~~

• 활용

- 자동 복구 메커니즘
- 서버가 정상 req. 못 받았을 때
client가 같은 req.
다시 해도 되니까?

판단 근거

~~★~~ 멍등은

외부요인으로 증간에 resource 변경되는 것
고려 X



동일 사용자가
동일 요청을 여러 번

캐시 가능 (Cacheable)

- req. result 리소스를 캐시해서
사용해도 되는가?
- GET, HEAD, POST, PATCH 가능
- 실제로
GET, HEAD 정도만 캐시로 사용

↳ POST, PATCH는

본문 내용까지 cache key로 고려